

‘아시아 고속도로’ (Asian Highway) 뚫린다

31개국 55개노선 14만km 연결... 내달 협정체결

아시아 대륙 31개국을 도로로 잇는 ‘아시아 고속도로(Asian Highway)’가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22~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연례회의에서 ‘아시아 고속도로’와 관련한 다국 간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아시아 고속도로’는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한·중·일과 러시아·인도·이란 등 31개국에 있는 기존 55개 노선(총 14만km)의 도로를 국경을 초월해 이용케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국~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 등으로 이어지는 1번 노선(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중국~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6번 노선(AH6) 등 2개 노선의 실질적 기점이 될 전망이다. 1번 노선의 한·일 간 연결은 부산항과 후쿠오카항 간의 페리(ferry)를 이용하게 되며, 장

■ 아시아인 하이웨이(AH) <자료: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부산이 실질적 기점... 한·일 해저터널 건설 가능성

기적으로는 일본이 1980년대부터 희망해온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을 통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아시아 고속도로를 위해 없던 도로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국경 지역의 일부를 개수·확장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는 일단 노선망·설계기준·이용절차 등에 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해 참여한 각국이 향후 이에 맞춰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표지판에 ‘AH1’ ‘AH6’ 등의 노선번호를 추가해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지역의 도로 사용을 위한 협의 문제 등이 큰 장애 요인이어서 실제 이용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홍일기자 cille6@chosun.com>

2004年3月3日 朝鮮日報

アジア高速道路 (Asian Highway) を開く

31カ国55路線14万Km・・・来月協定締結

アジア大陸の31カ国を道路で結ぶ“アジア高速道路(Asian Highway)”が建設される。

建設交通部は来月22～28日、中国の上海で開かれる第60回国連アジア太平洋経済社会委員会(ESCAP)年例会議で、“アジア高速道路”に関する多国間協定が締結される予定であることを2日、明らかにした。

“アジア高速道路”は、国家間の物的・人的交流拡大のため、韓国、中国、日本とロシア、インド、イランなど31カ国の既存55路線(総延長14万Km)の道路を、国境を超えて利用するものである。わが国は日本～釜山～ソウル～平壤～新義州～中国～ベトナム～タイ～インド～パキスタン～イラン～トルコなどに続く1号線(AH1)と、釜山～江陵～元山～ロシア～中国～ロシアなどにつながる6号線(AH6)など、2路線の実質的な起点になる見通しである。1号線の韓日間の連結は、釜山港と福岡港の間のフェリーを利用するが、長期的には日本が1930年代から切望してきた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を通して可能とすることもできる。

建設交通部は“アジア高速道路のために道路を新設するのではなく、国境地域の一部を改修し拡張する程度”“今回の協議は路線網・設計基準・利用■■■などについての政府間協定を締結し、参画する各国が今後それに従って道路施設を整備し、標識に[AH1],[AH6]などの路線番号を追加するためのもの”と語った。

政府は特にわが国の場合、北朝鮮地域の道路使用のための協議問題などが大きな障害要因であり、実際に供用できる時期は予測困難との立場である。